

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5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I. 일반개황

면적	2,150천 km ²	G D P	7,779억 달러 (2014년)
인구	27.4백만 명 (2014년)	1인당 GDP	25,401 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군주제 (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)	통화단위	Saudi Riyal (SR)
대외정책	친서방	환율(달러당)	3.75 (달러 페그제)

- 사우디아라비아는 2012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.9%에 달하는 2,659억 배럴의 원유(세계 2위)와 4.4%에 해당하는 8.2조m³의 천연가스(세계 6위)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으로,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.
-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, 금욕적이며,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임.
- 2015년 1월 Abdullah 국왕의 사망과 동시에 Salman 왕세제가 예정대로 왕위에 오르며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.
-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,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, 오만 등 선진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나,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유화정책의 시행으로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2~3%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세 유지

-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에 힘입어 2~3%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. 2014년에는 식료품을 비롯한 주요 상품의 수입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2.9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 정책 개혁과 자국민 고용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.2%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.

□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전환 불가피

- 최근 수년간 고유가 지속으로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어 왔으나, 2014년에는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5.2%까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
- 2015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산업다각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1.6%로 축소될 전망이다.

< 표 1 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 ^e	2015 ^f
경제성장률	8.6	5.8	3.9	4.1	3.1
재정수지 / GDP	12.0	14.7	8.7	5.2	-1.6
소비자물가상승률	3.8	2.9	3.5	2.9	3.2

자료: EIU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-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

-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 부문이 GDP의 46.5%, 재정수입의 80%, 수출의 90%를 차지하여,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세계 최대의 에너지자원 부국

-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.9%에 달하는 2,659억 배럴의 원유(세계 2위)와 4.4%에 해당하는 8.2조 m³의 천연가스(세계 5위)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임.
- 원유는 대부분 동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, 대표적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인 Ghawar(700억 배럴),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유전인 Safaniyah(190억 배럴) 및 Abqaiq, Berri 등임.
-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으로, 2013년 기준 일일생산량은 1,153만 배럴을 기록함.
- 아울러, 금, 구리, 인광석, 보크사이트 등 비석유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, 석유자원 개발에 국력이 집중되어 아직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.

< 표 2 >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류 생산량 추이

(단위: 만 배럴/일)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2013
생산량	966	1,008	1,114	1,164	1,153

자료: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, June 2013.

다. 정책성과

□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다변화 추진

- 사우디 정부는 현재 신도시 개발, 석유화학산업 육성, 국영광업공사(MAADEN) 중심의 광업개발, 기타 제조업, 관광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 민영화의 적극 추진

- 사우디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임.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는 사우디전력공사(SEC) 및 사우디항공(Saudi Arabian Airlines)의 민영화, 사우디텔레콤(STC)의 증시 상장, 국영광업공사(MAADEN)의 지분 매각 등임.

3. 대외거래

< 표 3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 ^e	2015 ^f
경 상 수 지	158,545	164,764	132,640	95,491	17,871
경 상 수 지 / G D P	23.7	22.5	17.7	15.1	2.5
상 품 수 지	244,774	246,571	222,714	184,072	109,750
수 출	364,735	388,370	375,961	346,820	280,798
수 입	119,961	141,799	153,247	162,748	171,048
외 환 보 유 액	525,521	640,975	710,485	741,991	718,077
총 외 채 잔 액	97,563	91,539	86,775	91,056	108,612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4.6	12.5	11.6	12.1	16.7
D S R	4.2	3.9	4.0	4.0	4.0

자료: IMF, EIU.

□ 유가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

-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적자에도 불구하고, 고유가와 원유생산량 증가에 따른 석유수출 호조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왔음.
- 그러나 2014년에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위축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12.7%로 전년(17.7%) 대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5년에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의 가속화로 인해 동 비중이 2.5%로 급락할 전망이다.

□ 외환보유액 감소 및 외채잔액 증가 전망

-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,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전망이다.

-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외채규모는 2014년 1,362억 달러에서 2015년 1,49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, GDP 대비 외채 비중은 16.7%, D.S.R.은 4.0%로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.
-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(SAMA Foreign Holdings)는 2013년 말 기준 7,572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을 운용 중으로, 이는 대외지급능력 유지의 안전판으로 작용함.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안정적 왕위계승으로 정치적 안정 지속 전망

- 2015년 1월 Abdullah 국왕의 사망과 동시에 왕위계승자인 이복동생 Salman 왕세제가 예정대로 왕위에 오르며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됨.
- Salman 국왕은 즉위 1주일 후 개각을 단행하여 아들 Mohammed bin Salman 왕자를 새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한편, 문화장관, 정보장관, 사회장관, 행정장관, 정보통신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음.
- 그러나 즉위 연설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, 이전부터 前국왕을 대신하여 Salman 국왕이 국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국정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.
- Salman 국왕은 다음 승계자인 Muqrin 왕세제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한편, Nayef 前왕세제(2011~12년)의 아들인 Mohammed bin Nayef 왕자를 부왕세제로 임명함.
- 이에 따라 Abdulaziz 초대 국왕의 손자 세대가 최초로 왕위계승 순위에 들게 되었으며, 향후 손자 세대간 권력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.
- 의회와 정당이 없는 대신, 국왕이 임명하는 자문위원회(150명)가 운영됨. 장관직은 4년마다 재·연임하는 형식이나, 평생직과 같은 정도로 내각 교체가 거의 없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높은 실업률과 시아파에 대한 차별로 인한 불만 등이 사회불안 요인

- 2014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11.2% 수준이나 실제로는 최고 20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,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정부는 2005년부터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75%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(Saudization) 정책을 시행 중이나, 인구증가율이 높고 민간 기업들이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숙련도는 더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실업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어려울 전망이다.
- 전 인구의 약 10%로 추산되는 시아파 신도들(Shias)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전복을 노리는 알-카에다 등과의 연계 의혹으로 정치·외교 분야의 공직 참여, 여행,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의 차별을 겪고 있음.
- 근래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, 부패 만연 등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.

□ 양호한 재정여건에 기반한 경제적 유화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희박

-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체제하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곧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, 국왕 및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.
- 아울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경제적 유화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함을 감안할 때,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- Salman 국왕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과 군인에게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한편, 학생과 연금생활자에게도 비슷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발표하였음.

3. 국제 관계

□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대미관계 유지

-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임.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 측면에서,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보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.
-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지로 인해 깊은 반미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, 정부정책과 국민감정 간에는 괴리가 있음.

□ 핵개발에 따른 불안 우려 등으로 이란과의 갈등 심화

- 1979년 이란 회교혁명 이후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, 2005년 이란에서 강경 보수파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.
- 국민 대다수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 중동에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.
- 최근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‘이슬람국가’ (IS)에 대항하기 위해 2014년 9월 뉴욕에서 외무장관 회동을 갖는 등 외교적 접촉이 있었으나,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□ 쿠데타, 테러 등으로 혼란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

- 바레인은 수니파 왕정 국가이나 시아파 국민이 대다수이며, 2015년 1월 예멘에서는 시아파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는 등 인접국들에서 시아파 세력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또한, IS와 ‘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’(AQAP)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활동이 점점 거세어지면서 역내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.
- 사우디아라비아는 GCC의 리더로서 IS에 맞서 미국 및 여타 GCC 국가들과 연합하여 시리아, 이라크의 IS 기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으며, IS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시리아의 인접국인 레바논에 경제적,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.

□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

-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, 우리나라의 2013년 원유 총수입량 9.5억 배럴 중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가 2.9억 배럴로 31.5%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.
-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14년 450억 달러이며, 수출은 자동차, 전기 기기를 중심으로 83억 달러, 수입은 원유,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
< 표 5 >

한 · 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 출	9,112	8,828	8,287	자동차, 정전기기, 건설광산기계 등
수 입	39,707	37,665	36,724	원유, , 석유제품, LPG 등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수주 감소

- 2014년 말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공사 수주 누계액은 1,320.5억 달러로,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총액(6,761억 달러)의 19.3%(전체 1위)를 차지하였음.
-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분야인 석유 및 천연가스, 석유화학 부문의 발주 감소와 주요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일정 조정으로 연간 수주액이 2013년 99.7억 달러에서 2014년 29.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.

□ 해외직접투자 (2014년 말 누계, 총투자기준): 219건, 16.5억 달러

-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신규법인 수 219건, 총투자금액 16.5억 달러이며, 최근 5년간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92%에 달하는 등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.
- 업종별로는 건설업(투자누계액의 79.6%)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, 제조업(투자누계액의 19.3%)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.

※ 연간 직접투자액(억 달러): 0.8('10) → 1.1('11) → 1.8('12) → 2.4('13) → 4.7('14)

V. 종합의견

-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에도 4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 다만 최근 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,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.1% 수준으로 하락하고,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흑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 등으로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2014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총외채규모의 약 8배에 달하며, D.S.R.도 4%대를 유지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.
- 높은 실업률과 소수 시아파의 소외에 따른 불만 등이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, 양호한 경제여건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적 유효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소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
책임조사역 고영애 (☎02-3779-5720)
E-mail: kya321@koreaexim.go.kr